

인 사 발 언

2016. 8. 8. (월), 15:00~15:40

춘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 종 룡

I. 인사발언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강원 지역의 행정중심지이자,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이 살아 숨쉬는
호반의 도시, 춘천에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통합지원센터가 개소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민금융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통합지원센터 출범을 위해 힘써 주신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과
김동일 道의회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서민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진태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지자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도 치하합니다.

II. 통합지원센터 개소의 의미

여러분,
그간 경제·사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삶의 매순간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옛말과 같이, 우리 선조들은 가난에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구려 고국천왕 시절부터
우리나라는 “진대법”을 실시하여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구휼제도를 시행(194년) 했고,

그 전통은 고려시대에는 의창,
조선시대에는 환곡으로 이어져
가난으로부터 서민을 구해내게 됩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서민금융이
바로 이러한 선조들이 시행해온 정책에 뿌리를 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제도적 취지를 계승하여,
정부는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자활·재기를 위해
정책자금 공급을 연 5.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개인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제도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는 등
다각적인 서민금융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민분들이 바쁜 일상에서도
다양한 서민금융 정책과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인프라인
“통합지원센터”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통합지원센터 설립 전후를 비교하면,
부천의 경우 자금지원이 22% 증가하고,
부산은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임에도
자금지원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수요자의 접근성 제고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개소하는 춘천 통합지원센터도
삶의 현장에서 “금융애로”라는 가뭄을 겪고 계신
많은 서민분들의 마음을 촉촉이 적셔줄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Ⅲ. 향후 서민금융 정책방향

여러분,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금융의 기본철학을 토대로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❶ 먼저,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9월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여,
향후 서민금융 정책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미소금융, 햇살론, 바퀴드림론 등
서민자금 지원 기능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서민금융 종합DB 구축을 기반으로
지원자별 이력관리, 상품 평가 등이 가능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순한 자금 지원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서민들의 자활과 재기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복합적 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각 기관에서 제공해온
서민금융 상담·교육·컨설팅 서비스 기능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하고 활성화하여,
종합상담(PB), 재무·신용교육, 창업 노하우 전수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❷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연계하여,
“서민금융 현장 네트워크 전국망”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11월, 부천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그간 속도감 있게 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금번 춘천 지역까지 총 22개의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춘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강원 지역 최초로 현장 接點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특별·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주요 광역거점에
센터 구축이 완료되어
전국망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앞으로 남은 11개 통합지원센터도 신속히 설립하여,
현장 네트워크 전국망을 보다 촘촘하게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㉓ 마지막으로, 수요자분들이
통합지원센터에 대해 더 잘 아시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서민분들이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으셨습시다만,
대부분의 센터가 작년 연말 이후 개소되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실 것이라 봅니다.

* 개소일자: 부천('14.11월)/ 대전('15.7월)/ 광주('15.11월)/ 대구('15.12월)/
부산('16.2월)/ 양천·광진·관악('16.5월)/ 노원·수원·천안('16.6월)/ 목포·
인천·성남·고양·청주·안양·안산('16.7월)/ 울산·창원·제주·춘천('16.8월)

이에, 지자체, 지역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 전광판, 대중교통 광고판, 반상회보 등
공익 매체를 적극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전통시장, 복지관 등
잠재 수요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신용교육·종합상담 등 찾아가는 현장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수요자분들의 통합지원센터 이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간 통합지원센터 이용자들의 사례를 발굴하고,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통해 널리 공유하겠습니다.

IV. 맺음 발언

여러분,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가장 잘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서민금융입니다.

서민금융의 溫氣를 통해
더 많은 서민분들이 자활·재기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지원이 절실하신 분에게
적시에 도움의 손길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유관기관 현장 실무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개소된 춘천 통합지원센터가
더 많은 서민들의 삶에 활력을 주고
자활·재기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여기 자리하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